

시론

최고의 시청률 담보한 '10월의 정치드라마'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다음 달은 정치평론계가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다. 정치적 이슈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4·10 총선 이후 여러 사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용산과 야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임계치의 변곡점이 바로 10월이란 게 정치평론계의 시각이다.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슈들을 뜯어보면,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정감사다. 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집권 3년 차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야권의 응답폭격은 불을 보듯 하다. 야권은 호기로 놓칠새라,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포진시켜 단단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다음은 재·보궐선거다. 10월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와 영

광군수 재·보궐선거가 있다.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써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여기서 패배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그 책임론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로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재의결 리스크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는 또 재의결에 부칠 것이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다. 요즘 윤 한 갈등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재의결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0월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험한 계절'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무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TF'를 꾸려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며 여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기에 시민사회 움직임도 심상찮다. 재야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결성한 '전국 비상시국 회의'는 지난 20일에 이어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경상지역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퇴진'에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면 더했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특히 10월은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제지가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10월은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이다.

정치평론가들의 말처럼, 10월은 정치인들에게 '잔인한 달'일 성싶다. 국민은 흥미진진하게 '10월의 정치드라마'를 보겠지만, 당사자들은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어서 '피 말리는 10월'이리라.

'10월의 정치드라마'는 이미 방영 전부터 관심이 높아 최고의 시청률을 담보한 상태다. 이제 드라마의 흥행 여부는 제작자인 사법부의 손에 달렸다. 국민적 감동 드라마 연출을 기대한다.

社說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 방안 찾아라

최근 광주·전남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때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마약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광주·전남지역도 이제는 마약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검거한 마약 사범은 총 2천2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년간 마약 사범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마약 사범이 740명까지 폭증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10년 사이 마약 사범이 무려 13배 늘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이 검거한 마약 사범도 2013년 88명에서 지난해 463명으로 10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연간 마약사범 수도 2013년 5천499명에서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약 3배 늘어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사법기관에 걸거된 마약사범들의 경우, 사법기관에 걸거된 이후에도 강한 중독성 때문에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추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강한 중독성 때문에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평생 끊지 못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치료·재활 시스템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마약 중독자들에게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어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라는 주제로 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겸한 광주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로 9월7일이 법정기념일이다. 사회복지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급전 또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넓게는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고령화시대 홀몸 노인이 증가하고 경제 형편

등을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정 또는 개인의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전담한 복지 시설 종사자들, 정작 그들의 삶과 인권이 열악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주시가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휴가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종사자들의 서비스도 혜택을 받은 것도, 이들이 떠나감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자치칼럼

G-페스타 성공의 열쇠, 주민참가와 주민참여



김 용 민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송원대학교 교수

가을이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과 풍작에 대한 감사의 시기이며, 축제의 계절이다.

최근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17개의 다양한 지역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통합한 'G-페스타 광주'를 선보인다. 한 달 동안 '비엔날레', '광주 김치축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추억의 종장축제' 등 광주 전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이번 광주시의 G-페스타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즐기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페스타'가 뭐지? '프린지페스티벌', 페스티벌은 알겠는데 '프린지'는 뭐지? 하는 분들이 있다. '페스타(Festa)'는 포르투갈어로 '축제', '파티'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에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이 최근에 좀 익숙해져 있는 말이다.

그러면 '프린지(Fringe)'는 원래의 뜻은 '주변부, 변두리'라는 뜻이다. 좀 더 의미를 담아내면, 미래지향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축제 공동체·유희한 축제를 말한다.

좀 어렵다. 축제는 많은 시민이 참가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일반시민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힘들어서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반면 제외회계를 갖는 추억의 종장축제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즐기는 광주지역 최대 축제가 됐다. 아마도 축제명도 한 몫 한 것 같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민이 참가해야 한다. 추억의 종장축제가 '2024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광주시민이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광주 버스킹월드드림, 종장축제, 광산 세계야시장 등 적극적인 주민참가가 축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즉 가족단위, 지인단위로 축제를 참여한다면 축제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광주에 대표적인 축제들은 대부분 시와 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우리는 마을 단위 축제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진안군은 2024년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 축제는 성동구의 온마

을 축제, 강동구에 성안 마을 축제,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 등이 있다. 광주지역에는 제9회제인 서창 역사축제, 무등 올림축제, 2024년 제1회인 수박 등 장미·정원 마을 축제가 있다. 동 단위 축제가 가지는 핵심 가치는 주민회합이다.

광주지역에 동 단위 마을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여 주민이 참가와 참여를 통해서 주민회합이 이뤄진다면 이들 동 단위 축제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축제를 시도해볼 수 있다. 마을 축제는 지금처럼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발적인 주민참가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 인적자원 동원도 훨씬 적은 것이다.

현재 광주시의 축제도 매우 좋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마을 축제를 바라본다면 또 다른 매력도 있지 않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보셨나요?' '양림동 펜인 마을을 가보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양림동 펜인 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왜 일까?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고, 주민이 마을을 가꾸고, 주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주민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것,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 축제 문화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함께 골목길을 짝짝 목 거닐어 보자.

기고

목포시 개항 127주년을 기념하며



이 원 구

前 목포시 의료원장 경제학·의학박사

10월1일은 목포개항 12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무안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 목포리(木浦里)는 일제 침략이 있기 전까지는 목포라는 이름으로 무안부에 속하는 조그마한 고을에 불과했다.

이러한 목포항이 우리나라 4대 항구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은 이제까지 무안중심의 무안반도에서 목포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된다.

이렇듯 목포는 해방이전까지 융성하게 발전하면서 호남선의 종착지 목포역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남영의 목포의 눈물이 유달산과 삼학도를 적실만큼 목포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목포가 언제 어디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해 오늘의 목포가 됐을까?

가까이에 있는 이우도시 여수시와 목포시의 현재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여수는 조용한 도시였다. 그러던 여수가 1987년부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삼역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해결하면서 눈부시게 목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여수 EXPO를 개최하고 여수세계 선박박회를 유치하고 관광객여수를 앞세워 지칠 줄 모르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우도시의 발전상이 무엇인가 뒤돌아봐야 한다. 사실 무안반도에도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여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

목포에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반도의 끝자락을 종착역으로 하는 목포역이 있어 서울 목포는 2시간에 질주해 서남해안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100의 섬으로 보낼 수 있고, 아름다운 항구 앞 선창(항만) 어항의 보고 복항(빛개)이 있다.

영산강의 관문 고하도와 유달산의 경관이 목포대교와 함께 빛나며, 신안쪽은 100의 진주보배섬은 자연경관이 미래의 보고이고 목포항이 수심이 얕아 중국과의 교역이 힘들다면 신안 송공항을 개발하면 대중국교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무안쪽에는 새롭게 들어온 무안공항이 무안반도 남단의 세계적 교통요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이제 옛날의 무안반도가 웅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웃의 여수밤바다처럼 무안반도 천사의 섬, 화려한 밤바다가 화려한 무안반도, 신안·무안·목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

이제 무안반도의 찬란한 내일만이 우리 신안·무안·목포의 미래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목포의 발전은 무안반도의 새로운 발전 모형을 만드는데 있다. 무안·신안·목포의 통합은 삼역통합 보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이제 새로운 무안반도의 부흥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너의 거리

이애정

떠어쓰기 불어쓰기 다 해봐도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은 사치였다  
너를 보내고  
굽은 등으로 세월을 쓴다  
그리움엔 슬픔도 자랐다  
너를 보내고  
영원성과 영원성의 부재(不在)에 몸을 떨었다  
너를 보내고

나는 부메랑을 기다렸다  
사랑아  
꽃이 잔 자리에 꽃이 피고  
떠남은 멀지만  
돌아옴은 짧게 와주렴



준비된 이별은 없다  
(시집 '르누아르의 꽃', 책만드는집, 2024)

[시의 눈]

학교 옆 붉은 지붕, 마당은 온통 화단인, 뒤란이 교실과 맞닿아 있던 당신의 집. 하고때면 그 아래 문구점엔 들렀지요. 당신 만나기나 할 것처럼요. 열린 대문 안 칸나, 백일홍은 눈부셨고 오래 설레었어요. 졸업식 날, 난 오두막 흐린 불빛으로 더 굽은 등조차 있고 첫사랑을 썼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당신 부재를 다 배우지 못했지요. 내게 반격의 부메랑이라든 던졌더라면 이리 안타깝진 않았을 거예요. 꽃잔지리다시 필때마다 짧게라도 와주려니 했지요. 한때, 흑시만 남긴채 먼나라로 갔구려 당신은. 순간 온몸이 빠졌어요. 무너지는 단풍이래 이대기가 'I'll Never Love Again', 그리고 시월 슈사바의 '술메이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침 뜨거운 당신이 내 곁에인 양 따라 부릅니다. 이애정 시인은 2005년 '문학시대'로 등단했고, 시집 '다른 쪽의 그대'(2005)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이별의 심리층을 뚫는 통찰로 정교한 감각들로 떠도는 그 부재를 담아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